

한국 유학생들의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군 복무 의미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여성학포럼

2019.11.26

최희정

연구소개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60 여명의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들과 심층 인터뷰
- 초국적 삶의 경로에서 오랜 기간 해외에서 교육받고 자란 한국인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군 복무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하고 있는가?

연구대상

- 사회경제적으로 중상층 이상으로 스스로 정의하고, 사회에서 인식되는 미국 유학생
- 중고등학교부터 미국 보딩스쿨(기숙사학교)에서 교육받고, 미국 명문대 진학
- 부모님의 일 특성상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나라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미국 대학으로 진학
- 즉,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간인 중고등학교 시기를 해외에서 보내고, 미국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

군 경험: "부러운 타자"에서 "우리"로

- "부러운 타자": 유학생의 이중적 이미지

- 호진의 이야기 (2013년 여름 인터뷰 당시 막 제대하고, 미국 대학에 가을 학기 복학을 앞둔 상태)
 - 처음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두 상관의 상반된 반응
 - 장교: 미국 대학에 다니니까 똑똑하고 일도 잘 하겠다는 생각에 호진이 부대에 온 것을 환영
 - 부사관: "미국물"을 먹어서 제대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
- > 군대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유학생들의 이중적 이미지: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영어도 잘 하는 엘리트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랐을 거라는 인식

군 경험: "부러운 타자"에서 "우리"로

- "부러운 타자": 유학생의 이중적 이미지

- "부러운" 글로벌 엘리트로서 유학생 출신 병사
- 대체로 행정병으로 근무, 통번역 등의 업무가 많은 군대 내 엘리트 기관 근무, 미군 관련 여러 가지 파견 기회
- 취업 준비 때문에 토익 시험 공부하는 다른 병사들의 영어 공부를 돕거나, 제대 후 어학연수나 여행 등에 대해서 조언

군 경험: "부러운 타자"에서 "우리"로

- "부러운 타자": 유학생의 이중적 이미지

- 철기의 이야기
- "2년 동안 한국말도 더 배우고.. 유학생들 맨날 보는데 다른 세계가 있겠지.. 랜덤으로 들어갔는데 유학생도 없더라고요..처음에는 후회 좀 했어요..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왔나.. 근데 또 처음에 가니깐 서울 사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학생이고 어릴 때부터 유학했고 하니깐.. 앤 고생 안 했구나..곱게 자라기는 했죠..저도 그거는 인정하는데..그래도 막 더러운 일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은근 좋아하더라고요? 지켜보면서.. 언제 배식조였는데 다 끝나고 청소까지 해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막혀가지고 음식물이 넘치는 거예요.. 손을 깊숙이 넣어서 뚫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막내이기도 했고.. 저는 그냥 했죠.. 표정 썩고 그런 것도 없이 제가 해야 하니깐.. 근데 '**너 워싱턴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지?**' 이러는 거예요..그 때 살짝 기분이 상하긴 했는데.."
(2013.06.18 인터뷰)

군 경험: "부러운 타자"에서 "우리"로

- "부러운 타자": 유학생의 이중적 이미지

- '너 워싱턴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지?: 글로벌 경험과 부유한 계층으로 곱게 자랐을 것이라는 이미지의 중첩
- 워싱턴 DC 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면 군대 내의 "더러운 일," "힘든 일"에 잘 맞지 않을 것,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부러운 타자” 라는 자각

- 군대 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남성들을 만나면서, 스스로가 특별한 계층이라는 자각
- 미국 대학교에 유학 중인 진짜 부잣집 자녀에 비하면 자신은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자신들도 다른 한국인들에게 “부러운 타자” 임을, 특별한 계층임을 인식
- 유학이라는 계층화된 특권 자각

“부러운 타자” 라는 자각

- 한국에서 자란 다른 한국 남성들과는 다르다는 자각
- 용훈: 확실히 **상하명령 관계가 좀 더뎠던 거 같아요.**(...)특히 체대 애들이 엄청 잘하더라고 요. 바로 딱딱 센스도 있고.. 저는 눈치도 없고. **미국자체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고 아무래도 선생한테도 그러니깐. 그게 좀..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선임이 말해도 내가 반박하고..원래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걸 많이 배웠죠. **조직생활에서 위에서 특히 한국은 내려오면 복종하고. 그런 면도 중요한데 저는 좀 항상 리더이고 싶고 팔로워를 잘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고생했었어요. 제가 성가대였는데, 거기서도 **‘청소 이렇게 해라’ 하면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하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트러블이 나거든요. 많이 배웠죠.** 선임들이 많이 얘기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때문에 힘들다고!’**(본인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죠..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나이도 많아가지고..(나이가 많으셨어요?) 많았죠 저는...두 살 많았죠..제가 1년 꿇었잖아요..제가 그 고1때 갔지만 9학년부터 다녔단 말이에요..1년 꿇었기 때문에..(보통 다른 병사들 보다 두살정도 위였고..?) 많게는 3살 정도 적었죠..다른 병사들이..

“부러운 타자” 라는 자각

<연구자>:군생활에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셨어요?

<Anthony>:힘들었던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일단 길다라는 거랑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잡는다고 하잖아요. 군기를 잡는다고. 그게 **한국에서 쪽 커왔으면 선후배관계가 뚜렷하게 있는데 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나이도 먹었는데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구요. (그니까 다 그런 거 같지는 않다는 게 본인이 상병이니까 밑에 후임들 대할 때 군기를 잘 안 잡으시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상병도 좀 오래 하면은 군기를 잡겠지 하는 기대치라고 해야되나 좀 잡겠지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딱히 뭐 뭐라 그러진 않는데 (그럼 다른 상병들이나) 좀 다르죠 . (너는 왜 이렇게 군기를 안잡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몇 번 들어봤어요. (처음에 계급이 더 낮았을 때 위에서 그렇게 군기를 잡으면 그건 괜찮았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적응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잘 하셨으니까) ㅎㅎ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런 거에 힘 빼기 싫다. 내가 더 급하다 좀.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2013.02.23 인터뷰)

용훈과 Anthony의 이야기

- 유학생 출신이어서 위계적인 군대 문화에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
- 동시에, 군대에서 요구되는 군사화된 남성성에 대해 매우 다른 태도
- 용훈 -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강조하며 군사화된 남성성에 가치 부여, 앞으로 삶에 자산으로 의미 부여
- Anthony - 선임들이 군기를 잡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본인이 고참이 되어서는 군대의 조직 문화에 소극적 대응, 군사화된 남성성과 거리 두기

군 복무를 통해 "우리" 되기?

- 전략적으로 유학생으로서 자신의 차이점들을 숨기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혹은 군사화된 남성성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통해 "우리" 되기 시도
- 용훈과 Anthony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유학생 이미지, 유학경험을 가진 본인의 특징, 군사화된 남성성 사이에서 협상
- 군대에서의 생존 전략
- 한국 남성으로서 완전한 성원권을 획득

군 복무를 통해 "우리" 되기?:차이 숨기기

- 학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조금 비싸잖아요 미국 학비가. 이걸 그대로 말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름 줄여서 천 만원으로 얘기했는데 그걸로도 놀라는 거예요. 막 부모님 차는 뭐냐..(면회오시면 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차 둘 다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 차가 조금 구형이어서 꼭 어머니 차 타고 오라고.. 근데 그것도 **계급이 낮을 때였고 상병 되니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막 편했죠.. 후임들 이니깐.. (철기, 2013.06.18 인터뷰)
- Anthony의 경우: 외교관 어머니를 따라 뉴욕, 방콕, 제네바,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살았던 초국적 삶의 경로를 숨기고 단순히 미국 유학생이라고 본인을 동료 병사들에게 소개

군 복무를 통해 "우리" 되기?

- "우리" 되기 노력은 실제적이기 보다는 전략적, 선임 병사들과 필요 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동료 병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본인의 차이 숨기기
-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철기는 계층화된 차이(예: 부모님의 차)를 숨기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었고, Anthony는 후임들 군기 잡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음

군 복무를 통해 “우리” 되기?

-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그러면 좀 잘 사는 줄 알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걸 사실 악용했죠.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잘 안 건들고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자인 척 하고 .. 일단 뭐 언어랑 마인드가 틀리겠다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그것도 좀 악용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좀 다른 거 같아요?) 일단은 다르게 보긴 보니까요. 뭐 말이 악용이지 그니까 최대한 제가 군대에서 편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네. 그렇죠. (외국에서 살다 와서 군생활이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여러 나라를 살다 왔으니까 적응은 금방 했는데 단지 이제 자유롭게 살다가 뭐 이걸 어느 대한민국 남자나 다 똑같겠지만 그걸 좀 더 많이 느껴서 저는. (상진, 2012.11.12 인터뷰)

군 복무를 통해 "우리" 되기?

- 상진: 용산에서 근무, 캐나다 영주권 소유자
-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편한 군 생활을 위해 오히려 "부러운 타자"로서 유학생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
- 용훈처럼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다는 점에 의미 부여를 하며 군사화된 남성성을 내면화 하기도 하지만, 상진은 군사화된 남성성에 무관심, Anthony는 불편함을 표현
- 그렇다면 이들은 오랜 해외 생활 뒤에 군 복무에 대해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인가?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어른이 된다”
- 위계적 조직 생활을 배우고 삶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규범적 남성성을 배우는 기관으로서 군대; “올바른” 남성성을 지닌 한국 성인 남성으로 성원권을 획득하는 기관으로서 군대 (Kim 2001; Kwon 2005; Lee 2005; Moon 2005a)
- 해외에서 교육받으며 부유한 계층으로 곱게 자랐다, “올바른” 한국인다움의 부재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 청년들의 경우 더욱 더 군 복무가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획득에 중요
- 유학생들 개개인이 군사화된 남성성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관계없이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규범적 남성성을 가진 한국 성인 남성으로, “우리” 중 하나로 공식적 인정을 제공하는 증명서로 작동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상진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로 군 복무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법적 권리 획득
-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은 또한 한국 취업 과정에서, 회사 생활에서 자산으로 의미화
- 일단 제가 면접 볼 때 항상 어필했던 게 뭐냐 하면 왜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으냐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았었고 한국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또 군대 또한 갔다 왔고**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서. (상진, 2012.11.12 인터뷰)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외국에서 성장해서 한국 회사와 사회에 잘 적응할 지 의심되는 유학생 출신 -> 글로벌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 한국 남성
- 군 복무를 통해 획득하는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유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이기적일 것, 고집이 셀 것, 예의가 없을 것 같다)을 희석시키는 효과
- 유성(취업 인터뷰 시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익이 많이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유학생이 아닌 분들은 유학생에 대해서 선입견이 상당히 있어요. '애 버릇없을 것이다, 이기적일 것이다, 멋대로 할 것이다'하는. 근데 저는 군대 장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없앤 거 같아요.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이제 지원서를 제출할 때 병역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미필자 공익 이렇게 썼었다면 저는 아마 서류도 안되었을 회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안가도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다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네.
- 어차피 한국인이면 미국에서 오래 유학을 했어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든요. 그걸 적응하는 한 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군 생활이 실제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 상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벌써 회사를 그만 두었을 것

군대 가서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나라 회사 기업 문화가 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기업문화에 적응을 하려면 군대를 안갔다 오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군대에서도 불만이 인사과에 있는 데도 **'아니 내가 여섯시에 끝나는데 애네는 무슨 생각으로 나를 열시 열한시까지 야근을 시키나..'**생각했죠. 그니까 외국적인 마인드로 **'무슨 권리로 그런 생각을'**했었는데 사회 나와 보니까 그게 당연시 되니까 (...) 일찍 퇴근도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뭐 눈치껏 해야죠. **일단 상사가 퇴근하면 위에서 퇴근하면 짜루룩. 뭐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그런 거를 몰랐겠죠. 군대를 안갔으면.**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많은 유학생들이 오랜 기간 해외에서 성장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유창한 영어 실력, 미국 대학 학위를 활용해 글로벌 엘리트로 인정받고,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은 한국
- 한국에서 “미국물” 먹은 이기적이고 버릇 없고 고집센 “타자”가 아니라 글로벌 엘리트이면서 충분히 한국적인 성인 남성으로 인정받는 데에 군 복무를 통해 획득하는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이 중요
-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은 주로 개인화되고 구체적인 이익 (취업에 도움, 한국 회사 생활에 도움)을 중심으로 의미화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 계층화된 의미화

- 유학생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이중적 시선을 생각했을 때, 또한 "글로벌 엘리트"로 인정받으며 한국의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층화된 전망을 고려했을 때, 남성 유학생들은 개인화되고 구체적인 이익에 기반하여 군 복무를 통해 획득하는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 의미화
- 그 과정에서 여성 유학생들은 유학생을 향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희석시킨다든지, 한국의 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
- 군대에서도 계층화된 경험(군무지, 보직, 파견군무 기회 등), 군사화된 남성적 시민권이 글로벌 엘리트로서 한국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군사화된 남성성과 여성성: 유학생을 중심으로

- 특정한 유형의 남성성의 구축과 유지에 상응하는 여성성에 대한 기대와 가정에 기반한다 (Enloe 2000; Gutmann 1997; Moon 2005b)
- 유학생 남성들은 남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 함께 공부하던 여성 유학생들이 병역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불만이 없다.

군사화된 남성성과 여성성: 유학생을 중심으로

어차피 한국인이면 미국에서 오래 유학을 했어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든요. 그걸 적응하는 한 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궁금한게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인데 여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여학생들 한국에 들어와서 좀 고생하고 그런 경우 있나요?)

봤어요. 취업해서 이직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엔 다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더라구요. 우리나라 대기업같이 문화가 좀 그런 곳을 못 버티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걸 생각해서 아싸리 애초에 졸업하자마자 아예 외국계로 취직한 애들이 거의 다 많고요. 대부분이고요.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대기업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본거는 아니지만 몇몇은 봤어요. (유성, 2012.10.07 인터뷰)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반대의 젠더정치

전의령(고고문화인류학과)
2019.11.26





DONGWHA DUTY FREE
东和免税店



불법가짜 난민 추방 · 국민안전 최우선

갈리회관



협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CHANEL





2018년 여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난민 반대” VS “난민 환대”?
- “국민 주권” VS “난민 인권”?
- “안전” VS “혐오”?
- ???



2018년 여름

- ‘예멘난민’ 또는 ‘무슬림 이민자’와 역사적/사회적 관계 미미
- “무슬림 없는 이슬람포비아”(Buchowski 2016)
- ‘상상의 공포’가 ‘실제적 위협’이 된 사건(구기연 2018)



2018년 여름

- 1) 사회경제적 위협(‘가짜난민’)
- 2) 국가안보적 위협(‘잠재적 테러리스트들’)
- 3) (여성) 안전 위협(‘잠재적 성범죄자들’)
 - 수많은 여성들, 적극 참여...
 -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 ‘일반 여성’, ‘일반 국민’의 목소리(?)

6.30.토요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 범국민집회
저녁 8시~10시



난민법 폐지 · 무사증 폐지
언론 편파보도 규탄 · 공정보도 요구
난민심사기간 단축
자국민 안전과 자국민보호
진짜난민보호 · 가짜난민 추방

8:00 주위축 설명서 낭독과 자유 발언 9:00 공연 및 퍼포먼스 9:40후반 설명서&구호 10:00 집회종료
주최: https://blog.naver.com/the_public_of_korea
불법난민신청자와국인대책국민연대 (난대연)
후원: 우리은행 1002-448-101604, 예금주 노승환



우익 포퓰리즘과 젠더

- 과거와 현재의 우익포퓰리즘, ‘남성적 공간’
 - Moghadam & Kaftan(2019): 글로벌 북반구+남반구의 우익포퓰리즘, ‘초남성성’ 땀
 - Zwiers(2017): 트럼프, 마초적 남성성을 전략으로
 - 한국의 태극기부대와 일베
- 실제로 많은 여성들 (또한) 참여...
- 남성적 공간으로 재현되는 우익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존재는 어떤 역할 수행하는가?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반대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급성장한 반다문화/반이주민적 정동과 난민반대 사이의 연속성?
- 난민반대 속 예멘난민(남성)의 성적 이타성(alterity)?
- 반다문화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성범죄자’로서의 ‘이주노동자/조선족/난민(남성)’에서 전사(prehistory)를 찾을 수 있어..
- 이주민/소수자의 ‘성적 타자화’? 글로벌 우익포퓰리즘이 사회경제적 불안에 호소/추동하는 전형적 전략
 - 트럼프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반대

- 반다문화, '성범죄자 이주민 남성' vs '겁탈당하는 한국여성'라는 우익적-남성적 불안을 꾸준히 추동
- 난민반대, 이 불안은 '여성의 불안과 공포'가(도) 되면서 거리로 나옴
- 반다문화의 남성적 불안=>난민 반대의 젠더-중층적 불안
- 우익포퓰리즘적 정동의 외연을 확장...



난민반대의 '여성 안전'

- '여성 안전'과 우익적 정동....?
- '강남역 여혐 살인', 미투운동 등의 여파 속, '여성주의적' 외피
-?



서구 우익과 페미니즘의 위험한 동거

- 프랑스를 비롯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보수/우익들, ‘젠더평등’이라는 여성주의적 가치를 이주민을 성적으로 타자화하고 교육과 계몽의 대상으로 재규정하는 우익적/식민주의적 기획에 활용(Morgan 2017)
- 2000년대 중반, 프랑스의 일부 여성주의자들, 무슬림여성의 히잡착용 금지법안 열렬히 지지(Scott 2007)
-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백인 여성주의자들,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탈레반으로부터의 여성해방으로 규정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비판

- Mohanty(1984), 서구 페미니즘에서 비서구 여성은 종종 계몽/해방되어야 할 타자로 인식, 그 안에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시선이 스며들어



정리...

- 한국, 대면적/역사적 관계가 미미한 새로운 타자들을 **서구를 경유하여 인식할뿐 아니라** 현재의 제반 불안들을 이 타자에 투사하여, ‘일반 여성(국민)’의 ‘**안전**’에 대한 합법적 요구로 재규정
- ‘안전’: 신자유주의+전지구적 대테러 정치 속 인구 이동의 통제/통치
 - ‘안전의 정치’: 젠더화+인종화+경제적불평등
 - ‘벌거벗은 생명’(아감벤)으로서 ‘무슬림 난민(남성)’

